

제주표준지 공시지가 8.34% ↑

국토부, 23일 '2021년 표준지 공시지가' 공시
올해 상승률 4.44% 대비해 갑절 수준 올라

내년 제주지역 표준지 공시지가가 올해보다 8.34%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1년 표준지 공시지가(안) 공시를 보면 내년 제주지역의 표준지 공시지가(안)는 8.34% 상승했다. 이는 올해 상승률 4.44%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지만, 2019년 상승률 9.74%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이다.

내년 제주지역의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전국 평균 10.37%보다 낮았으며, 시도별 상승률은 세종이 12.38%로 가장 높았으며, 서울(11.41%), 광주(11.39%), 부산(11.08%), 대구(10.92%), 대전

(10.48%), 경기(9.74%), 전남(9.67%), 강원(9.30%), 전북(8.69%), 경북(8.45%), 제주, 충북(8.25%), 경남(7.67%), 충남(7.2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제주지역 표준지 수는 1만161필지로 나타났으며 표준지공시지가 가격대는 >10만원 미만 4702필지(46.3%) >10만원~100만원 4789필지(47.1%) >100만원~1000만원 669필지(6.6%) >1000만원~2000만원 1필지 등이다.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 산정기준이 되며 재산세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된다.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안)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66개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사무소에서 총 1180명의 감정평가사가 참여해 이뤄졌으며, 이를 토대로 지난달 3일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른 현실화율을 적용해 산정됐다.

표준지 공시지가(안)는 24일부터 내년 1월 12일까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 또는 해당 표준지가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하고 이의신청할 수 있다.

표준지 공시지가(안)는 소유자 및 지자체 의견 청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2월 1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휴양림서 즐기는 여유 23일 제주시 절물자연휴양림을 찾은 관광객들이 산책을 하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상국기자

섬지코지 화산체로 오름 형성과정 규명

전용문·고정군·고기원 박사
공동연구 국제학술지 게재
“마그마 통로 10개 이상 확인”

제주의 대표적 관광명소인 서귀포시 성산읍 소재 섬지코지 화산체의 지하구조를 통한 제주오름의 형성과정을 규명한 연구논문이 발표되며 학계의 관심을 받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의 섬지코지를 대상으로 진행한 지질조사 결과가 국제학술지(SCOPUS와 ESCI)인 '대한지질학회지' 12월호에 게재됐다. 세계유산본부 한라산연구부 전용문 박사와 고정군 박사, 제주도개발공사 기기원 박사가 연구진으로 참여했다.

23일 세계유산본부에 따르면 이번 섬지코지 연구는 제주의 오름들이 만들어질 때 지하에서는 어떤 일을

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최초의 사례로 제주도 오름의 형성과정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제주도 지표에 370여 개의 오름이 존재하고 있어 지하에도 최소 마그마 통로가 370여개가 존재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오름을 만든 마그마의 통로가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연구진은 1개의 화산체로 알려진 섬지코지 일대에서 5개 이상의 화산체가 연속적으로 분포하고 있음을 확인했고, 선돌바위와 붉은오름도 이들 화산체 중 하나인 것으로 파악했다. 나머지 화산체들은 용암 하부에 있으며, 화산체의 형성과 용암의 분출이 동시기에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진은 섬지코지 일대에서 최소 10개 이상의 마그마 통로를 확인했

고, 각각의 화산체를 만든 마그마가 지하에서 어떤 모양으로 존재하고 있는지를 밝혀냈다.

아울러 선돌바위와 같이 수직의 원기둥 형태로 마그마가 상승하다가 솟은 지형을 만든 경우 선돌바위 형태로 상승하다가 지표에서 깔때기처럼 벌어지면서 화산활동을 일으킨 경우 화산체는 만들지 않고 마그마가 곧바로 용암으로 흘러나오는 경우들이 있음을 확인했다.

신창훈 한라산연구부장은 “이번 연구는 제주에 산재해있는 오름이 짧은 기간 한변의 화산활동에 의해 만들어진다든 기존 개념에서 나아가 동시기에 여러 지점에서 복합적인 화산활동에 의해 형성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또한 화산을 만든 마그마가 남긴 지하구조를 보여주는 최초의 연구라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제주 스마트시티 챌린지 실증 서비스 도, 친환경 스마트 모빌리티 체험 서비스도 확대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실증 서비스를 시작한 다. 제주도는 23일 '2020 제주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실증 론칭 이벤트'를 통해 오픈 통합플랫폼 'e-3 DA.com'과 모빌리티 운영 어플인 'GreeGo'를 론칭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 실증 론칭과 함께 서귀포시 혁신도시 주유소에서는 스마트 허브를 운영하고, 라스트 모빌리티를 이용하기 위해 e-삼다(3DA)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예약, 결제 등을 체험할 수 있게 됐다.

도는 이날 실증 론칭을 계기로 제

주 스마트시티 챌린지에서 구상하고 있는 스마트 허브를 본격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스마트 허브는 기존 산업시설을 전환해 신재생에너지 잉여전력 활용 하고, 스마트 충전 서비스 및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 등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서귀포시 중문과 혁신도시, 제주시 구좌읍 신재생에너지 홍보관에 구축했다.

도는 향후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를 스마트 허브 중심으로 도내 전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올해 스마트시티 챌린지 예비사업의 정식 서비스를 본격 추진하게 됐다”면서 “제주의 에너지 및 교통문제를 최첨단 디지털 기술로 해결하고, 민·관 협업 방식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해서 도민은 물론 관광객까지도 체감하는 스마트 아일랜드 미래 도시의 초석을 다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5월 국토교통부 주관 '2020 스마트시티 챌린지 공모사업' 사업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 이 사업은 기존 주유소, 편의점, 버스정류소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스마트 허브로 구축하고, 신재생에너지와 e-모빌리티 공유 솔루션을 연계해 스마트 허브 중심으로 도내 전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시 올해 주차면 1314면 늘렸다

제주시는 올해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 복증화와 공한지 주차장 조성, 자기차고지갯기 지원사업을 통해 총 1314면의 주차면수를 확충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영주차장 조성에는 사업비 69억 5100만원을 투입해 총 791면을 확보했다. 36곳에 630면의 공영(공한지) 주차장을 만들고, 공영주차장 한 곳에서 복층화사업을 통해 161면을 추가 조성했다.

또 자기차고지갯기사업 지원을 통해 523면의 주차면을 확보했다.

시는 올해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읍면 부설주차장 8799개소의 4만3187면에 대한 전수조사도 벌였다. 이를 통해 주차장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중인 619건과 불법전용한 876건을 적발해 원상회복명령을 내렸고 4건에 대해선 형사고발을 예고한 상태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무인 민원발급증명서 확대

제주시는 이달 21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가 22종 추가됐다고 23일 밝혔다.

추가 서류는 근로복지공단 의 고용·산재보험 가입증명원 등 16종과 외교부의 여권발급기록증명서 등 6 종이다. 이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한 서류는 종전 89종에서 111종으로 늘어났다.

무인민원발급 서류 증가로 코로나 19 시대 비대면 서비스 확대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문미숙기자

동문재래시장 32개 야시장 매대 운영자 모집

제주시는 내년 3월 계약이 종료되는 동문재래시장내 야시장 32개 매대 운영자를 23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2018년 개장한 동문시장 야시장 매대의 계약기간은 3년이다.

운영 희망자는 식품설명서 등의 신청양식을 제주시 홈페이지(고시·

공고란)에서 내려받아 작성해 등기 우편(1월 15일 오후 6시 도착분에 한함)으로 보내거나 경제일자리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운영자 선정은 메뉴의 차별성·독창성·음식 조리의 적절성 등을 평가해 1차 합격자를 가리고, 심사위원(6명) 앞에서 직접 만든 음식 조리

과정과 맛 등을 평가하는 품평회를 거쳐 최종 32명을 선발한다.

현재 매대 운영자도 신청 가능한데, 신청자가 많을 경우 다수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신규 신청자에게는 일정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전통시장에 새로운 활력이 되고 있는 야시장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활성화 사업과 시설 개선을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미숙기자

국내개발 우수한 [신품종] 감귤묘목 분양

농가 소득에 큰 도움이 될 품질이 우수한 국산 품종

- 원터프린스** - 연내 수확이 가능한 겨울 과일 시장의 새로운 맛! 2021년 3월 남품 예약마감 사전예약 특전(2년생 탕자대목) 2022년 3월 남품 예약기간 2021년 3월 10일까지
- 미니향** - 작은 감귤이 맛있다! 고당도 소과형 감귤!
 - 하례조생** - 당도는 높고 산함량은 낮은 고품질 과실품종.

과수농가 보급품종

1.3년생 레드향, 한라봉, 천혜향, 황금향, 유라조생, 궁천, 흥진, 남진해(카라향), 제라론, 탐나는봉

가정원에 (조경수)

2-7년생 하골, 팔삭, 세미늘, 금굴, 당유자, 아미나스, 미나몬 국내산 탕자대목 판매 (신고번호 03-0182-2020-3)

제주한라농원은 종자업등록 국립종자원 품종신고 농촌진흥청 통상실시 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공식판매하는 중요업체입니다.

JEJU HALLA PARK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서성로 991번길 1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17-20-02호

010-6500-2329

허가번호 제주 18-2017-2002호

감귤묘목

유라조생 3년생 계약양묘

유라조생	1,2,3년생
감평	1,3,4년생
성하홍조생	1년생
성전온주	1년생
천해향	4,5년생
황금향	4,5년생

한림종묘

010-3690-2453

감귤 신품종 분양

2021년 봄 출하예정 묘목 분양

만감류 레드향(무독), 천혜향, 황금향, 원터프린스, 제라론(제논), 미니향, 한라봉, 탐나는봉, 사리랑, 아미나스

조생 유라조생, 하례조생, 궁천 (2년생 이상 100% 이상한 묘목임)

농장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평화로 서귀주유소에서 모슬포 방향 300M 위치)

종자업등록번호 : 18-2003-20-09

자원종묘

010-2691-1883

감귤묘목

아스미 4, 5년생

당 17.4브릭스 산 1.0인 최고 품질의 아스미는 소득이 월등합니다. 수확량이 많고 해거리가 거의 없으며, 판매 단가가 높습니다. 아스미는 이제 시작단계로서, 그 앞길이 창창합니다. 일본의 품종보호 신청일은 2018년 1월 15일인데, 석파농산은 그 이전에 생산판매허가를 받고 생산한 4,5년생을 판매하므로, 로열티 등 일본가격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판매확인서 발급합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많은 문의 바랍니다. 단, 일본의 보호신청 이후에 생산한 1,2년생 묘목을 판매하거나 구입 시는, 바로 법에 걸려짐.

·카라향	1, 4년생	·고림조생	3년생
·유라조생	1년생	·하례조생	2,3년생
·레드향(무독)	1,2,3년생	·한라봉	5,6년생
·천혜향(무독)	2,3,4년생	·하골	2,3,7,8년생
·궁천	1,2,3,5년생	·그외 다수품종	

최대규모, 최고경력, 건설속도 35년

석파농산

농장위치 :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201-1번지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03-20-08

010-2699-2355